

## “플 베고...책 읽고...명상하며 더위와 더불어 살지요”

나는 더위를 피하려 하지 않고 더위와 더불어 산다. 차밭에 집풀이 자라던 아침에 예초기로 자른다. 마당의 잔디와 언덕의 풀, 언덕 가장자리의 풀도 깎는다.

서재에서 반라(半裸)의 몸이 된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한다. 아침에는 자연 바람 속에서 살고, 섭씨 30도 전후의 한낮이 되면, 세수를 하고 물수건을 등에 얹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하고, 냉방을 하기도 한다.

책 속, 글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서재에서 지지만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으로 나갈 때는 날파리나 풀모기를 쫓기 위하여 부채를 들고 나간다. 내 부채 한쪽 면에는, 서툰 먹 글씨로 ‘무심(무심)’이라고 쓰고 다른 한 면에는 ‘狂氣(광기)’라고 써 놓았다. 무심은 하늘의 마음 가지기이고 광기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미쳐버리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이루 수 없다. 미쳐버려야 하는 것이다.

‘無(무)’자는 ‘씻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태우니 없어져버린다’는 ‘없음’이지만, ‘无(무)’자는 ‘하늘 天’자를 닮은 글자로서, 하늘의 텅 비어 있음과 같은 ‘없음’과 우주의 시원함을 뜻하는 없음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점의 ‘극락전’을 ‘无



名士의 여름나기 - <1>

量壽閣(무량수각)이라고 썼다. ‘무량수’는 영원의 시간을 뜻한다.

내가 ‘무심(无心)’을 부채에 쓴 것은, 부처님의 마음, 텅 빈 하늘의 마음, 영원의 시간, 우주 시원의 마음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아니,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사실은 깨달음을 통해 거둬내고 싶은 것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마음은 무심이다. 무심은 현실을 잊어버린다. 초월해버린다.

잔디 위와 높은 갈나무 잎사귀들에는 금빛 화살 같은 햇살이 작열한다. 갈나무 그늘 속에 허름한 나무 평상 하나가 놓여 있다. 평상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놈의 등허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웃웃을 모두 벗어 버리고, 바다를 건너고 들판을 휘질러온 푸른 바람과 푸른 그늘로 목욕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목욕을 즐기면서 처마 끝의 풍경소리를 듣는다. 바람은 풍경에 달려 있는 양철 물고기를 희롱하고, 물고기는 몸부림치듯 풍경을 흔들며대고 풍경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낸다.

갈나무와 호두나무에서는 매미들이 운다. 합창이다. 그것은 나를 스쳐 지나간 옛사랑 같은 이명(耳鳴)이다. 뒷산에서는 짝새 소

리, 짹짹 푸드득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 소리들은 서재 속에서 생긴 나의 우울을 치유하는 신약이다.

언뜻에서는 수련 꽃송이들이 작열하는 해를 즐긴다. 한여름에 그놈들은 한 시쯤부터 졸기 시작하여 네 시쯤이면 꽃잎을 모두 닫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이튿날 아침 7시부터 천천히 그 꽃잎들을 벌린다.

언뜻의 물속에서는 비단인어 금붕어들이 순환하기도 하고, 이끼를 열심히 뜯어먹기도 한다. 그놈들은 움직이는 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인데, 안양(安壤 - 畝는 극락의 탄이름이다.

내 평상 자랑을 좀 해야겠다.

평상, 갈나무의 그늘 아래 앉은 채 거무튀튀하게 늘어가면서도, 자기 등허리가 토굴 주인 늑대가 명상하는 자리라고 자부하는 아늑은, 주인 늑대가 남은 목숨을 도깨비한테 저당 잡히고, 모두 사버린, 오른쪽 구유산 모퉁이와 왼쪽 백산 끄트머리 발로 구획지어 잘라낸 연꽃 바다와 섬들과 하늘을 품 품하게 살며 두었다가, 서재에서 돌보지 너머로 책을 쓰다가 쉬러 나온 주인 늑대에게 시시콜콜 보고한다.

‘당신이 서재에 계시는 동안 저 건너 바다에서 달려와 당신의 모래밭에서 부서진 파도는 팔백 사천 팔만 개, 심연에서 꼬들거린 키조개와 피고막과 새조개와 갯벌에 기어 다닌 송장게 칠게 도둑게들이 팔만 사천구만 마리, 뛰어다니 망둥어와 수면으로 뛰어 올라 햇빛을 찬양하며 퍼덕거린 송어와 농어와 도미 전어 멸치 등이 팔천 억겁 마리, 바지락 케는 아낙 고막 잡는 아낙들이 천 다섯 사람, 정치방에서 고기잡이 하고, 불발로 낙지잡이 하는 어부들이 삼십 명, 그물 깊고 있는 어부가 세 사람, 지나간 고깃배가 세 척, 청둥오리 2백 마리, 해오라기 스무 마리, 멧황새 열 마리, 검은댕기 무루미 다섯 마리... 물떼새 스무 마리, 갈매기 백 열 두 마리... 그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당신의 하늘과 바다 사용료, 오늘도 모두 외상입니다.’

주인 늑대인 나는 ‘그래그래 알았다’ 하며 고개 끄덕거리고 ‘부지런히 사용하되 더럽히지말라고 해라’하고 명령하며 텅 빈 하늘을 쳐다본다. 흰 구름 한 장 흘러간다.

그래 그랄다. 나의 여름은 저 구름처럼 유유히 잘 흘러간다.



소설가 한승민

## 선종법통 새로 정립 도의국사 비문 확정

조계종조 도의 국사 수법기법비문 초안이 확정됐다.

조계종조 도의 국사 기법비문 건립 추진위원회는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기법비문과 기법비문 서각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비문 초안은 추진위

원장 지관 스님(총무원장)이 직접 작성했으며, 도의 국사의 생애, 구법 활동, 법맥 등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됐다.

‘대한불교조계종종조도의조사입당구법기법비문’에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서당지장(西堂智藏), 남전보원(南泉普願), 도의원적(道義元寂) 등이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상좌였음을 밝혀, 도의 국사가 마조의 법맥을 이어왔음을 적시했다.

특히 ‘도의 조사가 지장 선사로부터 수법(受法)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이 근역(權域)에 전래된 이후 열거(廉居)→보조체징(普照體澄)→황벽희운(黃檗希運)→임제의현(臨濟義玄) 등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이 부분은 비석이 세워질 중국 우민사족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선종의 법맥에 열거·보조 선사가 추가됨으로 새로운 법통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銘文 번역 전문 3편>

남동우 기자



이걸 먹으면 말이지? “이 음식에 깃든 은혜...” 7월 26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효행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공양개를 외출 때까지만 해도 의젓해보이던 아이들도 우렁차워지기 시작했다. 남겨놓아야 할 단무지를 출렁 먹어버린 아이, 발우를 두고 단 단무지를 코를 막고 먹는 아이, 먹지 않아도 되는 천수를까지 마셔버리고 책꽂이 아이, 법당은 그야말로 ‘아단법석’이다. 그래도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여, 지도 법사 스님의 얼굴에는 얇은 미소가 떠올랐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후(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삼키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점  
**02)763-2980**  
 종로, 서초, 강남, 송파, 관악

**社 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품 펼쳐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팔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겐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륜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전접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회화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법륜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륜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1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강명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강도, 연영사 용인구 권영동 157 한양빌딩 206호(8층) 도보 5분

##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상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울려 지는 멋있는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construction & design  
**PYEONGKEON**

(株) 平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